

## 【 해외금융 뉴스: 일본 】

### 일본손보험, 차량 도난사고 실태조사 결과 발표

- 최근 일본손해보험협회(日本損害保險協會)가 작년 차량 관련 도난사고로 보험금이 지급된 사례들을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, 도난 당한 차량용 제품 중 네비게이션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.
  - 조사 결과에 따르면, 2009년 차량용 제품 도난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 건수는 총 2,988건으로 건수로는 조사를 시작한 2000년 이래 최다를 기록했으며, 이 중 53.5%인 1,599건이 차량용 네비게이션 도난으로 인해 지급된 것으로 집계됨.
  - 도난 당한 네비게이션 상당수는 인터넷 경매로 재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, 이는 인터넷 경매 특성상 제품 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않아도 판매가 가능하다는 특성이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.
  - 보고서는 인터넷 경매를 통한 도난 네비게이션 거래를 막기 위해 네비게이션 제조 번호가 찍힌 사진을 게재하는 등 제품 출처를 명확히 하는 조치들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음.
  
- 또한 보고서는 차량 관련 도난 사고가 주로 전문 절도단의 소행인 만큼 도난 방지 교육 강화와 함께 이모빌라이저 장착 의무화 등 보다 강력한 법적 장치가 시급함을 강조함.
  - 조사 결과 2009년 최다 도난 차량은 도요타의 15인승 미니밴 하이에이스(hiace)가 전체 도난 차량의 14.7%를 차지했는데, 전문가들은 하이에이스가 다른 차량에 비해 상대적으로 내구성과 부품 범용성이 우수하고 해체가 용이해 중동, 아프리카 등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고 있음.
  - 한편, 이번 조사로 도난 차량 상당수가 이모빌라이저(immobilizer)\*가 미장착된 차량으로 주로 전문적인 절도단에 의한 범행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만큼 지속적인 차량 도난 방지 교육과 함께 이모빌라이저 장착 의무화 등 제도 개선책이 시급하다는 것이 업계의 대체적인 평가임.

\* 이모빌라이저(immobilizer): 해당 차량의 고유 정품키가 아니면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여 차량의 도난을 방지해 주는 시스템

(일본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)